

이길 때까지 싸우는 역전의 패잔병

홍비장군 홍계남

오남진

목차

- 1 제목
- 2 목차
- 3 줄거리
- 4 캐릭터
- 5 죽산전투
- 6 에필로그
- 7 배경
- 8-11 지역문화 연계성
- 12 Q&A

줄거리

- 서자인 소심한 홍계남이 **무술**을 배우며 육체와 정신을 가다듬고
- 아버지, 황진 등과 일본**통신사**를 가서 조선의 무예를 인정받고 돌아와
- 전쟁이 나자 **탄금대**에서 싸우다 포위망을 돌파하고 고향에 가서
- 가족들과 **서운산성**에 올라가 의병을 조직해 북상하는 적에 저항하다
- 의병장이던 아버지와 친척형을 잃지만 **격문**을 쓰고 의병장으로 나서며
- 죽산산성**을 탈환하여 경기도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는 이야기

캐릭터

홍계남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이덕남

형제이자 삶의 멘토

홍언수

충의의 무장, 굳센 아버지

김성일과 신립

안일한 지휘자

변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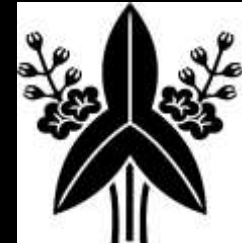
조선의 발명가

황진

명궁인 의리의 전우

고니시 유키나가

전쟁전에는 평화의 중재자
전쟁중에는 잔혹한 선봉장



후쿠시마 마사노리

창을 잘 다루는 사무라이
죽산성에 주둔한 가족의 원수

죽산전투 – 반년간의 사투

1592년

7월 죽산근처의 좌찬령에서 싸우다 부상을 당하지만 **이덕남**에 의해 구조됨

8월 자리를 비운 사이 일본군에게 공격당함, **홍언수**와 **이덕남**이 연달아 전사,
도발하는 일본군진영에 돌입하여 아버지의 시체를 찾아오고 의병장을 맡음

9월 경기도 조방장이 되어 3도 의병 연합군으로 공격하려다 적의 매복에 실패

1593년

1월 **변이중**과 안성부근의 소를 모아서 전차인 **복개전차대**로 공격, 적의 화공에 실패

2월 명궁 **황진**과 지속적으로 기습, 빈틈을 노려 식량을 탈취해 일본군을 도발하여
성 밖으로 나오게 해 물리치자 **후쿠시마 마사노리**군은 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후퇴
행주산성에서 싸우던 나머지 일본군도 후방 보급로가 끊기자 전군이 한양을 포기하고
경기도 이남으로 철수

에필로그

홍계남

진주와 경주 등지에서

다른 의병/관군들과

연합해 싸우고

명/조선의 포로들 구한다.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는데

난의 무리인 한현의

거짓말에 반군혐의를 받아

잡히나 무죄로 풀려난다.

정유재란 전 병사

김성일과 신립

왜란 중 병사, 전사

변의중

생존, 귀향 후 자연사

황진

2차진주전투 중 전사

고니시 유키나가

귀국 후 내전 중 패배, 처형

후손인 '고니시 다카코' 씨

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

후쿠시마 마사노리

귀국 후 내전 중 몰락, 병사

배경

격전지

묘소

기타지역

서운산성

홍언수 묘

경복궁 (서울)

죽산산성

이덕남 묘

탄금대 (충북 충주)

엽돈골 (충남 천안)

홍계남장군고루비

진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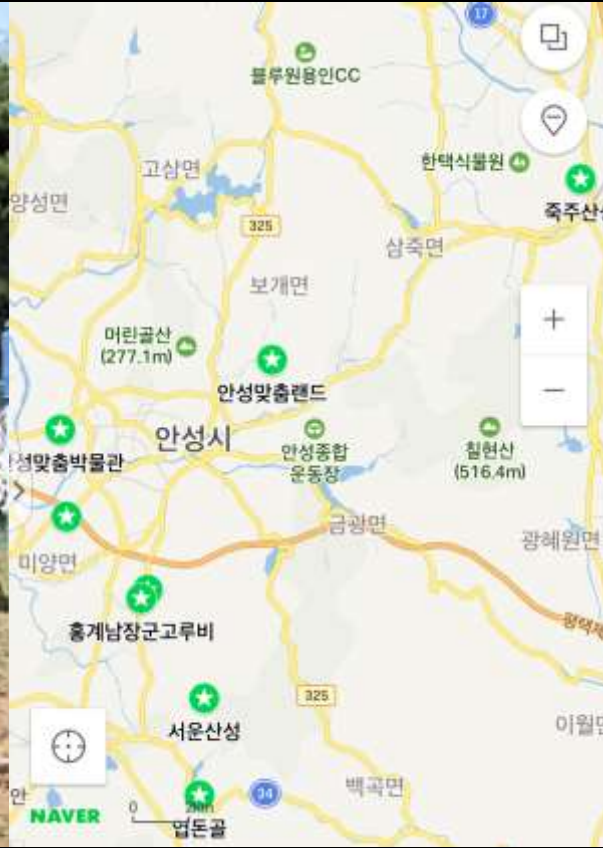
행주산성 (경기 고양)

안성맞춤박물관

안성맞춤랜드휴상

진주성 (경남 진주)

지역문화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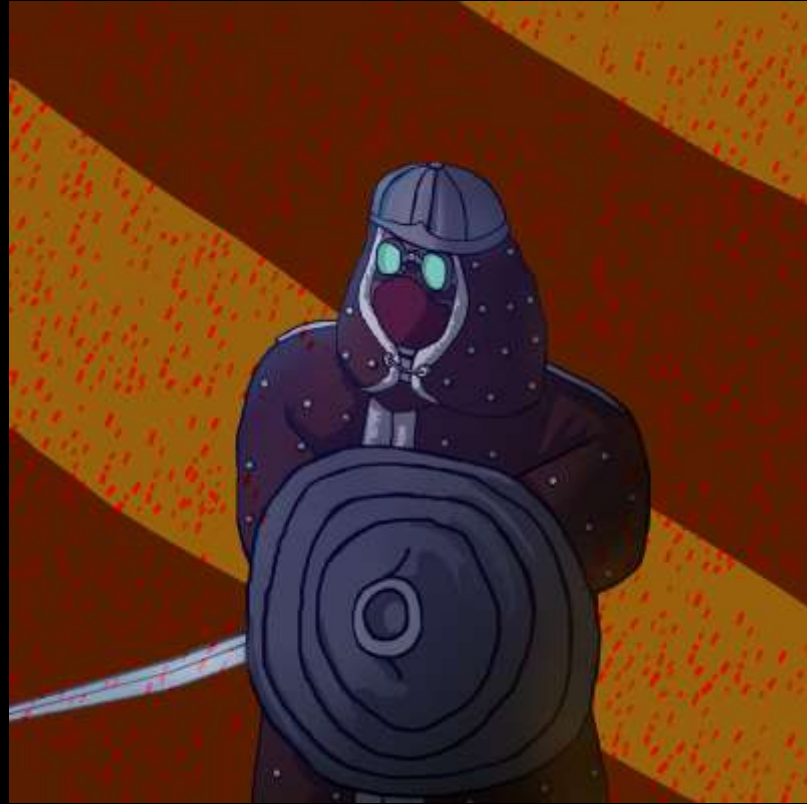
경기 안성지역 – 관련장소들에 대한 연계 스토리텔링
춘향제 – 현대까지 전해지는 영웅을 기리는 지역민들과 후손들

지역문화 연계성

복수대(復讐隊)로 나서자 - 나라와 가족을 위해 싸우자는 호국문학

이 땅에서 먹고 자라 숨 쉬고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창을 베고 자며 쓸개를 씹어가면서 임금과 아버이를 위해 복수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불행히도 이번 난리를 만나 흥한 칼날 아래 아버지와 형을 함께 잃었으니 어찌 구차히 살아 있기를 구하여 왜적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있으랴? 생각건대, 멀고 가까운 지방 선비와 백성으로서 나와 같은 참화를 입은 사람이 천, 백뿐이 아니리라. 그런 사람들을 모아 한 부대를 이루어 '복수대'라 일컬으며 부형의 깊은 원수를 갚으려 한다. 부형과 처자의 죽은 뼈가 들판에 버려져 있으며 그 원통한 넋이 의지할 곳 없는데 나 홀로 편안히 앉아서 복수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황천에서도 알음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이 과연 '나도 아들이 있다', '나도 아우가 있다'고 말하겠느냐?

지역문화 연계성



홍계남 장군이 안성의 특산물인 고추를 가루로 뿌려 적군을 막은 전설로
임진왜란 이후부터 고추를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임진왜란 전부터 안성에서 고추를 재배하고 기른 전통을 알릴 수 있다

지역문화 연계성



통신사의 마상무예 - 고려때부터 이어진 조선의 무술을 응용하여
공연성격의 마상재로 발전

수원 화성 행궁 무예24기 시연, 경북 영천의 영천문화예술제 등지에서 재현

지역문화 연계성



복개전차대 – 조선의 과학력 전시(안성맞춤박물관),
조선시대의 탱크, 육상의 거북선으로 캐릭터화

Q&A



감사합니다!